

2022학년도 2학기 대토론회 결과 보고서

관인고등학교 교육연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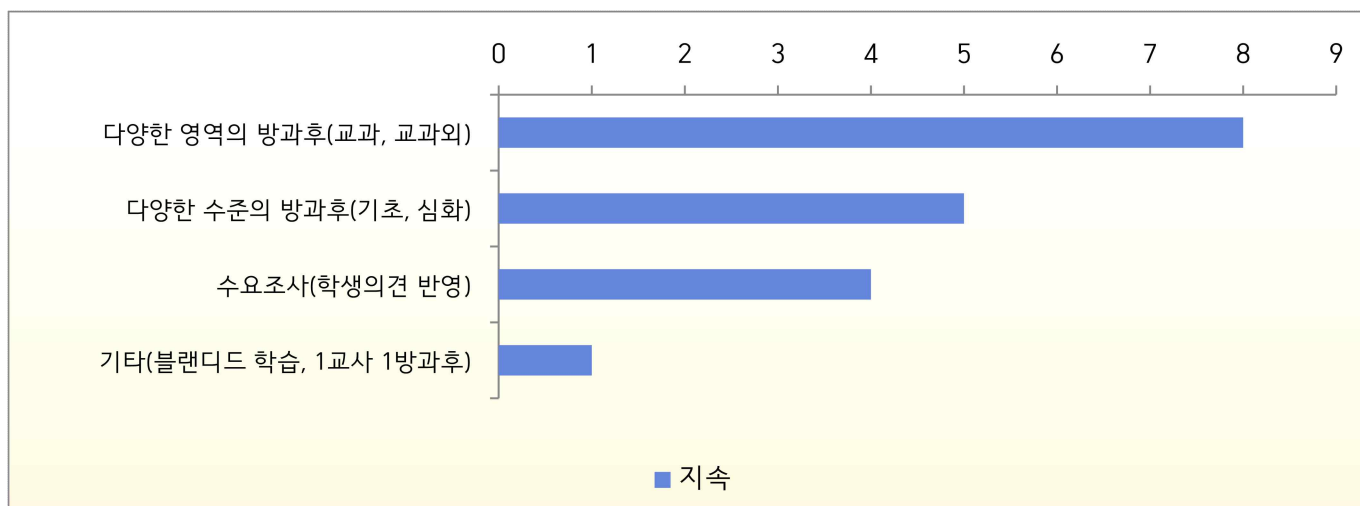
1. 운영 내용

- 가. 일시 : 2022. 12. 22. (목) 5~7교시
- 나. 장소 : 체육관 및 어학실
- 다. 대상 : 전 교육공동체
- 라. 주제 : 2022학년도 학교문화인식조사 지수, 방과후학교, 문우재 야간자율학습, 미래역량을 기르기 등의 모둠 토의·토론 후 모둠별로 정리된 내용 발표하기

2. 주제별 내용 정리 결과

가. 방과후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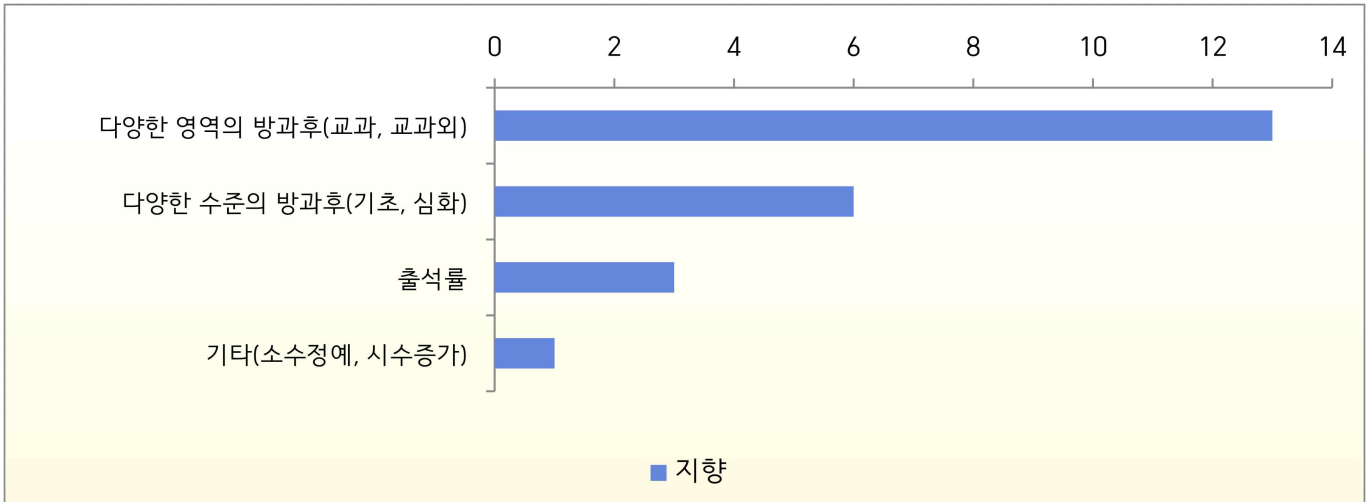
1) 지속해야 할 부분



다양한 영역의 방과후가 개설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옴. 2022학년도 현재 수능 교과 이외의 방과후도 개설을 하였지만 음악과 체육 이외에는 없는 상황임. 학교가 시내에서 멀다보니 수능 교과 외의 방과후 수업을 위한 외부 강사 채용이 쉽지 않음. 2023학년에는 인력풀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학생들이 희망하는 강좌를 개설하고자 노력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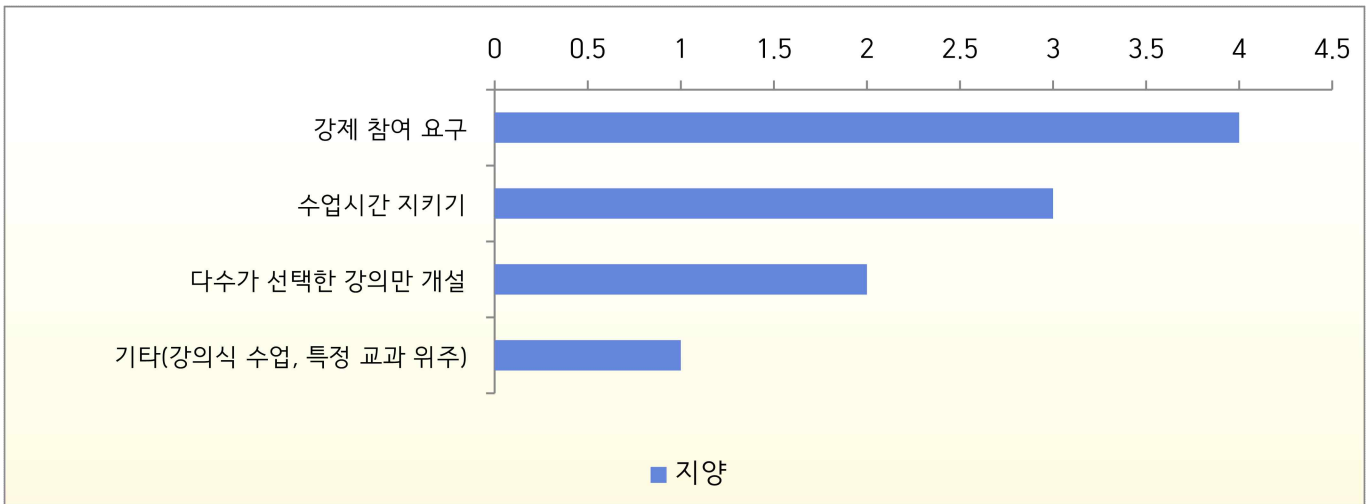
방과후 학교의 수준을 평균치에 두지 말고 기초반과 심화반 등으로 학생의 수준에 맞게 방과후 학교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하여 수요조사 시에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지향해야 할 부분



지속해야 할 부분의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나옴. 다양한 영역의 방과후와 다양한 수준에 맞게 방과후 개설을 희망하는 의견이 대다수 였음. 그리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방과후 학교를 신청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출석을 하여 높은 출석률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옴. 이를 토대로 2023학년도에는 좀 더 철저한 출석 관리가 요구됨.

3) 지양해야 할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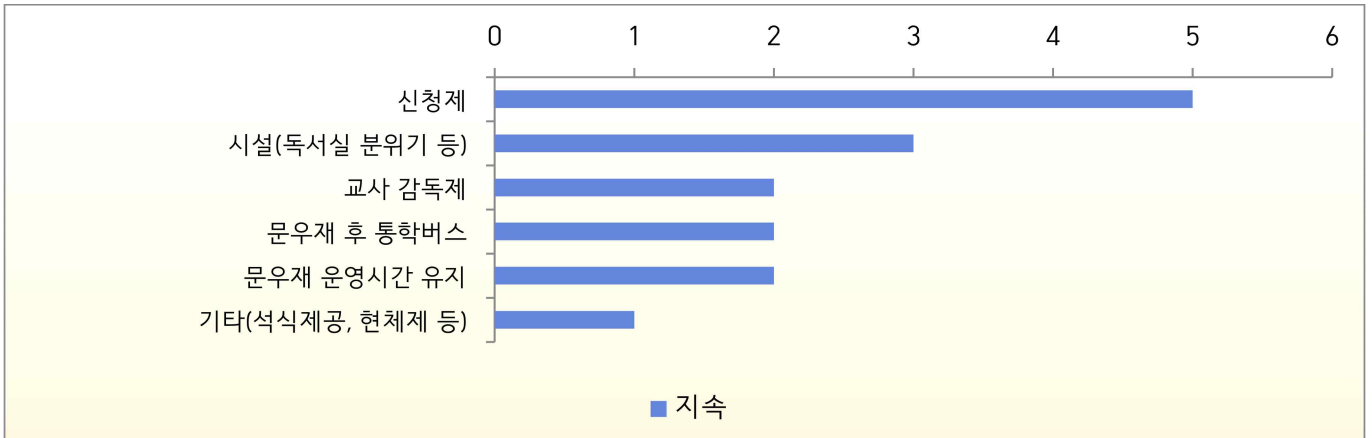
전교생이 100명이 되지 않아서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했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참여를 요구한것처럼 보임. 2023학년에는 방과후 학교는 자율적으로 신청하되 책임감을 가지고 방과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임.

방과후에 다양한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방과후 수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필평가 이후에 몰아서 하는 등의 경우가 생겨 가능하면 처음에 정해진 시간표대로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그 밖에 지나친 강의식 수업을 지양하고, 특정 교과 위주의 방과후 편성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냄.

나. 문우재 야간자율학습

1) 지속해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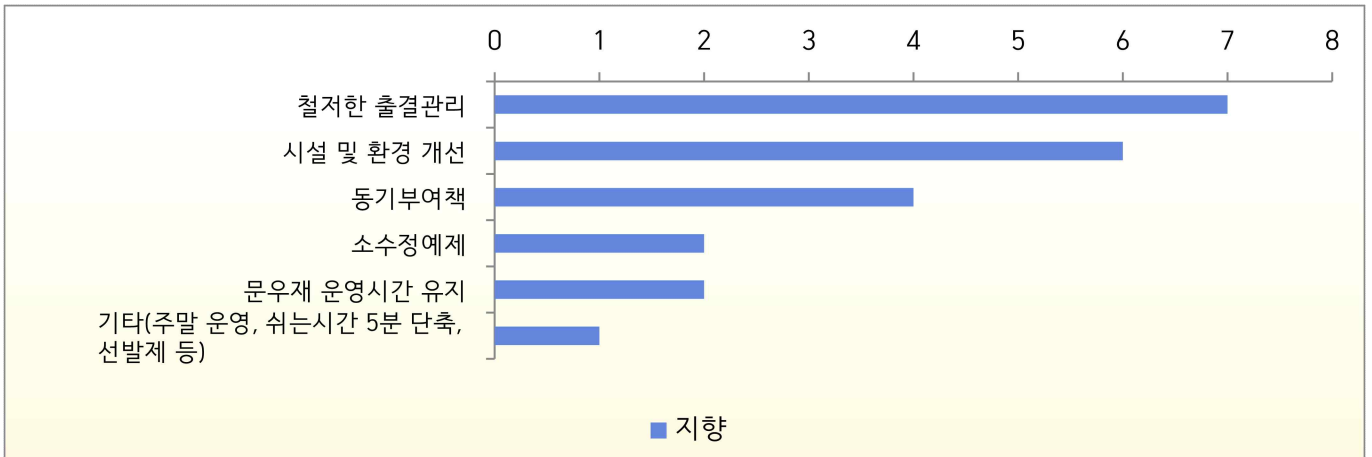
현재처럼 학생들이 신청하여서 참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임. 다만 출석 체크를 하지만 자율성이 강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현재의 문우재 실은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 계속 이 시설 및 환경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많이 나옴.

그리고 교사들이 출석 체크 및 자습 감독을 문우재 실에서 함으로써 더욱 집중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이 나옴. 또한 문우재 종료 후 통학버스 운행이나 현재와 같은 운영시간을 유지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옴.

그 외 석식제공, 현체제 유지 등의 소수 의견도 나옴.

2) 지향해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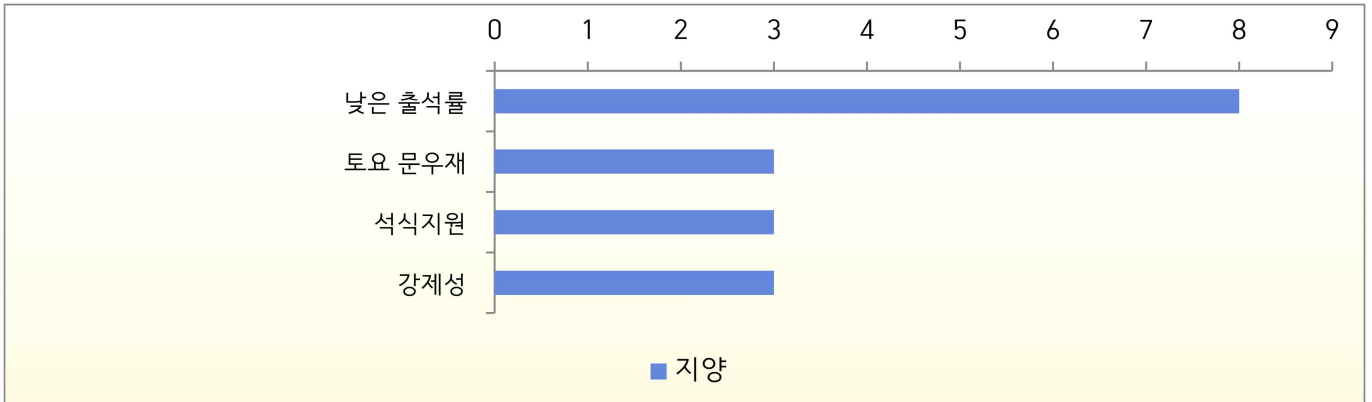
대부분의 교원과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 출결관리 부분이다. 학생들 스스로도 출결이 많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반성함. 이를 위해서 출결이 나쁠 경우 패널티 등을 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음. 2023학년도에는 문우재 해당 부서에 이 의견을 잘 전달하여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신청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문제집 제공이나 대학 탐방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반대로 출결이 낮은 경우에는 패널티 등을 줘서 문우재에서의 공부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옴.

그리고 정해진 소수의 인원만 받아서 운영하자는 의견과 문우재의 운영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들도 나왔음.

그 외 주말 운영을 유지하자, 선발을 하자, 쉬는 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자는 소수 의견도 나옴.

3) 지양해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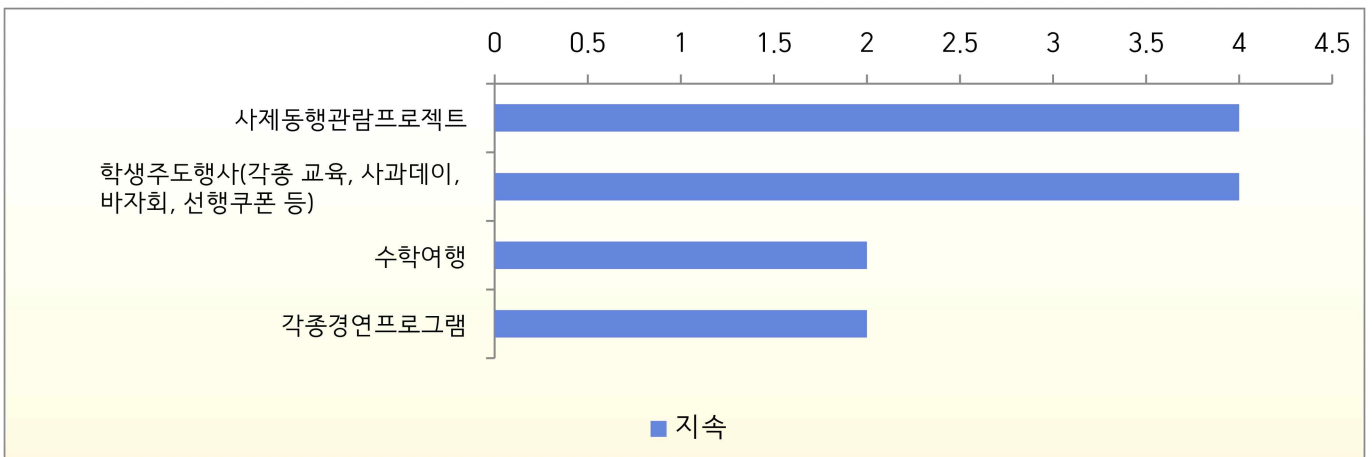


문우재의 공통된 의견은 출석률임. 교사들의 통제가 아니더라도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관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임. 반대로 너무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도 소수 나옴.

토요 문우재의 경우 현재 거의 나오는 학생이 없어서 2023학년도부터는 아예 없애자는 의견도 나왔으며, 석식 지원의 경우 실제로 해당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지 않아서 학교 예산 및 수익자 부담까지 생겨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시됨.

다. 교육과정 운영(학생만 선택함)

1) 지속해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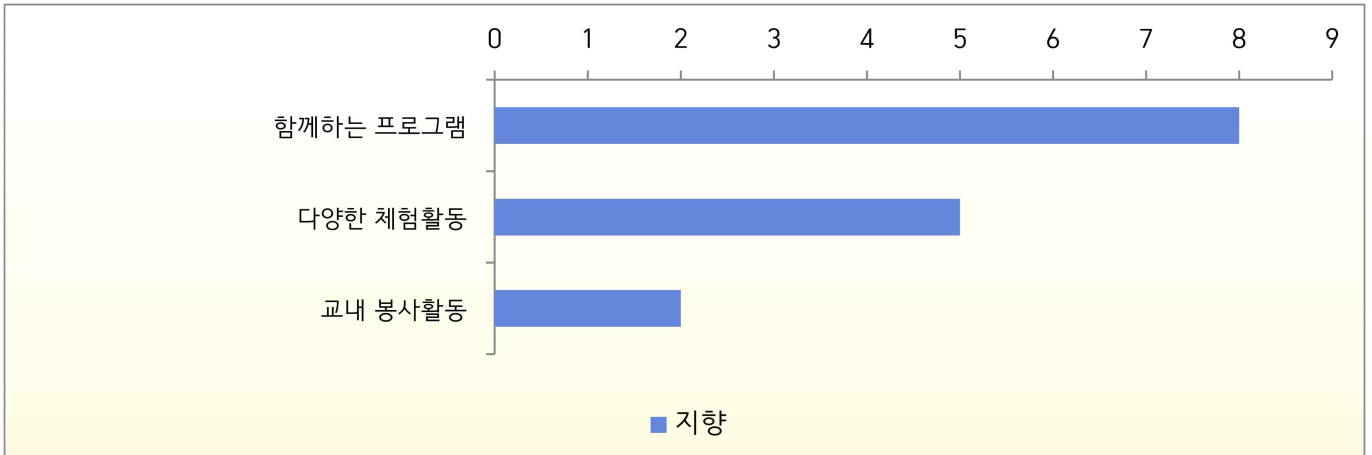


2022학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제동행 관람프로젝트에 학생들이 큰 호응을 보냄. 특히 마지막 3차 시에는 학생들이 직접 관람할 프로그램 및 일정을 계획하는 완전한 학생주도성으로 진행되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자 함.

관인고는 소규모 학교지만 다양한 학생주도성 행사를 하고 있음. 2022학년도에는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경우 학생 동아리에서 직접 계획하여 교육을 주도함. 다만 작년까지 했던 선형쿠폰이나 바자회 등이 없어서 아쉬웠다는 의견도 많았음. 2023학년도에는 다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수학여행의 경우도 2023학년도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길 희망했으며 각종 경연대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었음. 2023학년도부터는 대입에서 수상실적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대회의 형식보다는 발표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도 높이고 학생부생활기록부의 기재와 연계 시키는 등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임.

2) 지향해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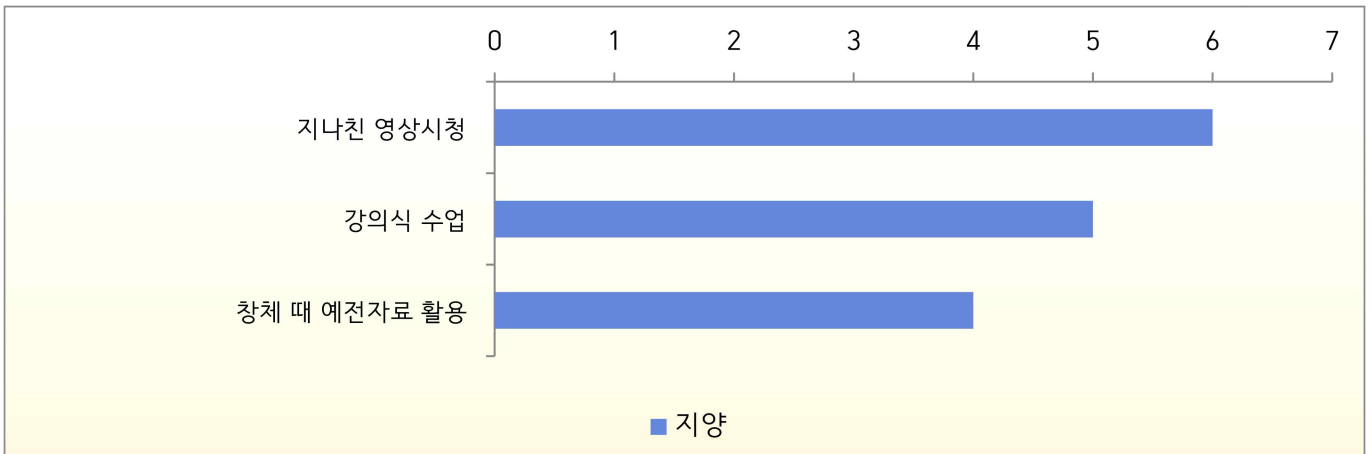


학생들 대부분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있었던 활동들을 다시 계획하여 2023학년도에는 더욱 더 한마음이 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음.

자연히 다양한 체험활동에 대한 욕구도 강하게 반영이 됨. 강의식 수업 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주도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수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냈.

마지막으로 2023학년도부터는 대입에서 교외 봉사활동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양질의 교내 봉사활동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제시함.

3) 지양해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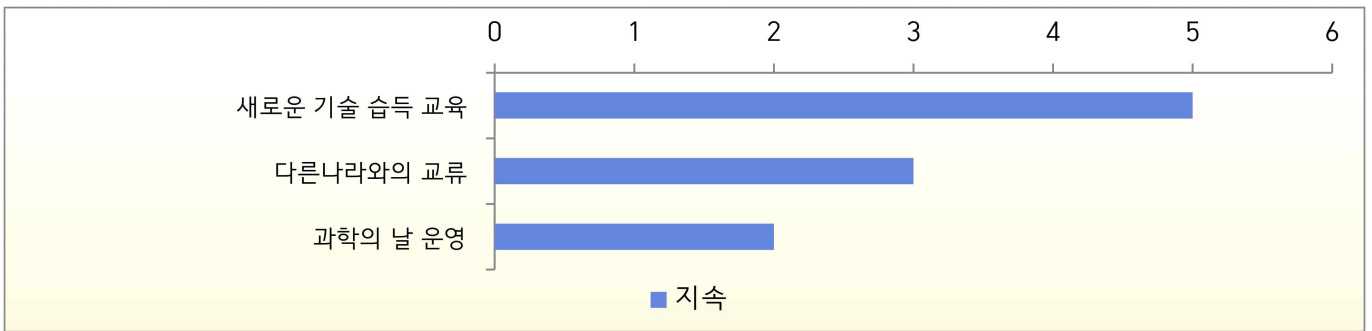


수업 시간 도입부 등에서 주로 영상 시청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의 시각에서는 영상 시청이 과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음. 가능하면 영상 시청은 동기 부여 정도의 시간만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들이 나옴.

강의식 수업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그 비중을 많이 줄였으면 한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함. 교과마다 이론이 중요한 부분이면 강의식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강의식에서 좀 더 학생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제시함.

창체 시간 때 하는 각종 교육에서 이미 많이 접한 자료들을 활용한다는 의견도 많았음. 교육을 준비하는 교사 입장에서 새로운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가능하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자료를 재구성 하거나 학생 중심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라. 미래역량 육성(학생만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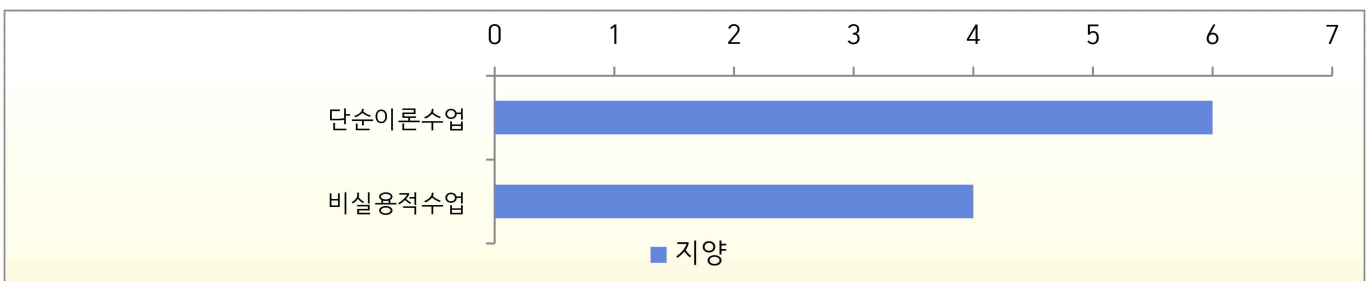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드론, 3D, 코딩 등)을 학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함. 앞으로 이러한 기술이 일생 생활 뿐 아니라 진로 선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음.
 2022학년도에 일본과 미국의 학교와 줌 등으로 교류를 하면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음. 내년에도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통하여 세계화 시대에 맞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면 어떨까 하는 방안을 제시함.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미래역량하면 과학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이야기 함. 그에 따라 학교에서 매년 운영하는 과학의 날도 계속 운영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냄.

2) 지향해야 할 점



미래의 핵심역량이라고 하면 학생들은 과학 기술 쪽을 많이 언급함. 3D 교육, 코딩, 빅데이터 분석, 정보처리, 컴퓨터 프로그램, 가상현실, 로봇 만들기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옴. 2023학년도부터는 방과후 학교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4차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역량을 성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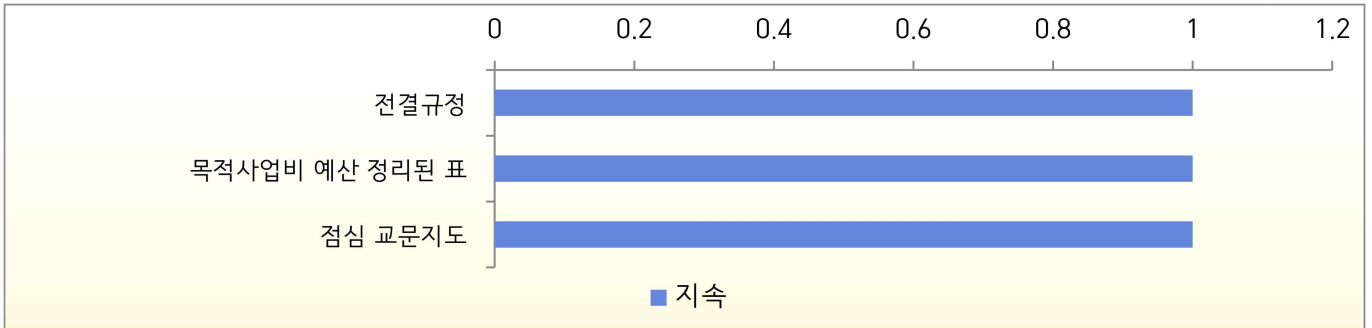
3) 지양해야 할 점



미래핵심역량에서 지나치게 이론 수업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이 대다수임. 그리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위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제시함. 2023학년도에는 이러한 점들을 잘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계획해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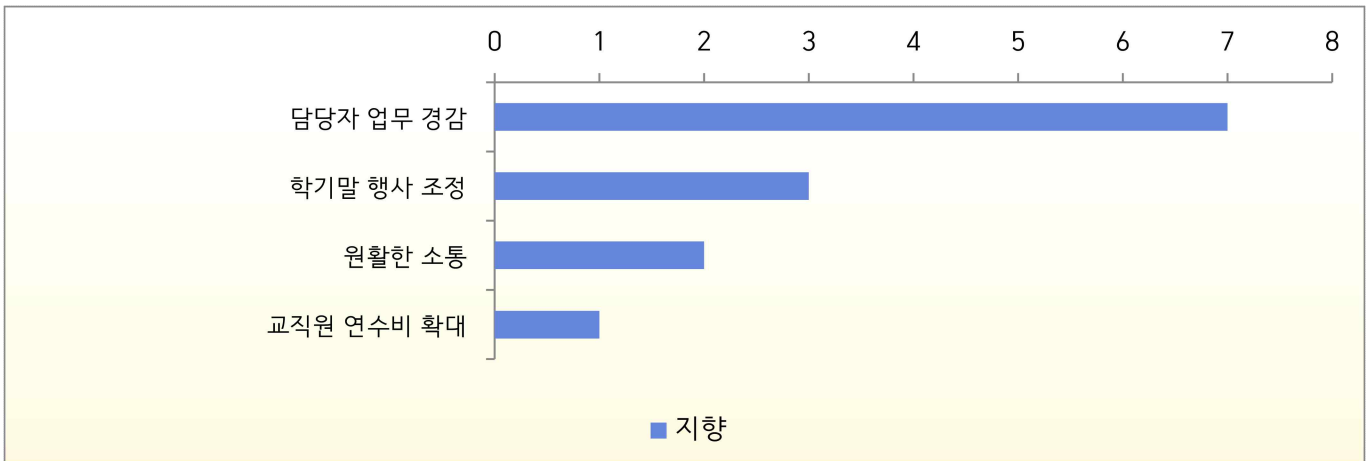
마. 학교업무 정상화(교직원만 선택)

1) 지속해야 할 점



현재의 전결규정, 목적사업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된 표, 점심 교문지도 등은 계속해서 유지했으면 하는 의견들을 제시함

2) 지향해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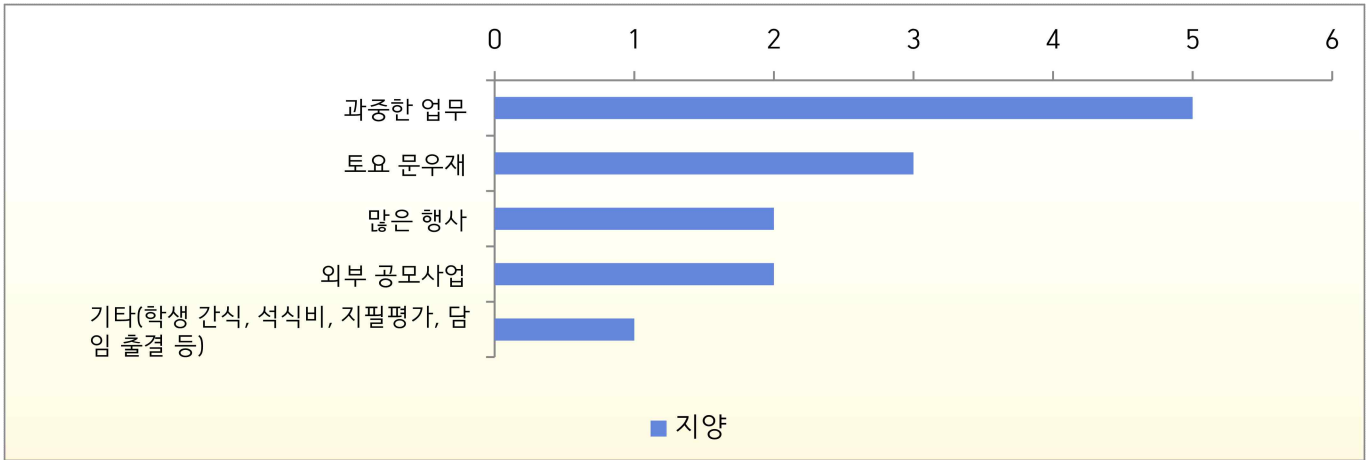
담당자들의 업무 경감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았음. 담당자가 제시한 마감 기간을 지켜서 제출물 제출하기, 담당자도 여유 있게 마감일자를 안내하기, 기안문 올렸을 시 결재라인에서 수정이 이루어졌다면 담당자에게 알리기, 가능하면 교사의 고유 업무가 주가 되도록 하기, 업무분장표 세분화 등의 의견을 제시함.

학기말 특히 학년말은 가장 바쁜 시기인데 굼직한 행사가 많이 몰려 있어서 너무 부담스럽다는 의견들이 많음. 2023학년도 학사일정에 이러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담당자가 업무를 추진할 때 어디까지 구두보고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어렵다고 함. 구두 보고와 업무포털에서의 기안 상신까지 하면 업무 진행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함. 담당자 선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구두보고를 생략했으면 함.

올해 교직원 연수비를 250,000원을 책정하였는데 연수비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음. 2023학년도 본예산에는 1인당 300,000원의 예산안을 올려놓은 상태임.

3) 지양해야 할 점



소규모 학교 특성상 1인당 업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다고 느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기에 묵묵히 일을 하고 있으며 대신 행사의 횟수를 줄이고, 외부 공모사업을 추가적으로 공모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함.

토요 문우재의 경우 현재 학생들이 아예 안 나오는 날도 많기 때문에 2023학년도부터는 토요 문우재를 중단하는 의견도 나옴.

그 외 과도한 학생 식비, 학생 석식비 지원, 지필평가에서의 출제 어려움, 담임 출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소수 의견도 있었음.

3. 활동 사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진 미기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진 미기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진 미기재

4. 대토론회 결과 공유

- 가. 2022학년도 2학기 대토론회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기재 및 전 교직원에게 파일로 공유
- 나. 토론으로만 그치지 않고 2023학년도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 교직원은 반드시 정리된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를 추진

5. 성과 및 개선점

가. 성과

- 1) 전 교육공동체가 모여서 2022학년도 관인고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러 의견을 제시하여 2023학년도 학교교육과정 계획에 큰 바탕이 됨.
- 2)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교직원이 생각하는 부분의 간극을 좁히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됨.

나. 개선점

- 1) 학부모의 참여가 없어서 2023학년도에는 학부모 총회 등에서 충분히 홍보하여 대토론회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2) 이번 대토론회는 학생 모둠, 교직원 모둠, 학부모 모둠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여 모둠 활동 도중에 각 교육 주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서 아쉬웠음. 다음번 대토론회 때는 모둠 구성 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봄.